

1958	in Germany
1983	passed the final examination to conclude his silversmith apprenticeship, since then has worked freelance in his own atelier
1991	passed the examination to become a master silversmith
1994	passed the examination to become a master goldsmith
1958	독일 출생
1983	은세공사 견습 과정 이수 완료 후 최종 은세공사 자격증 시험 합격, 이후 현재까지
	개인 작업실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1991	은세공 장인 시험 합격
1994	금세공 장인 시험 합격

Erich Zimmermann 에리히 침머만

Snowflakes Opaque gemstones are polished into thin disks with classical table, girdle and culet facets. Irregularly shaped outlines and very thin bridges enhance the weightless delicacy and recall Snowflakes dancing on a breeze. Based in Augsburg, this goldsmith and silversmith further heighten the jewellery's perfection by adding tiny, scarcely visible diamonds.

Cocoons

Zimmermann's affinity to the silversmith's art manifests itself his Cocoon collection. Voluminous yet simultaneously lightweight objects that remind us of organic structures provide charming counterpoints to the human body in the form of graceful jewellery for the ears and for the neck.

눈송이

불투명한 보석은 클래식한 받침, 띠, 밑면을 지닌 얇은 원판 위에 광택이 나게 손질되어 있다.

불규칙한 모양의 테두리와 매우 얇은 링은 가벼운 섬세함을 더해주고 산들바람에 춤추는 눈송이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시작된 이 금과 은세공은 육안으로 포착하 기도 힘든 작고 정교한 다이아몬드를 부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혀준다.

누에고치

은세공 예술과 작기와의 밀접한 관계는 그의 작품 '누에고치' 컬렉션에 분명히 나타난다. 웅장하면서도 가벼운 동시에 유기적 인 생물을 상기시키는 이 작품은, 귀와 목을 장식하는 우아한 쥬얼리의 형태로 인간의 신체에 대조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Cocoon" necklace 750 rose gold "누에고치" 목걸이 순도 75% 로즈골드

